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2월15일 주일 설교입니다.

< 지혜롭고 겸손한 자 >

잠언 3:32-35 / 새찬송가 552장 (통일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1.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겸손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내 바깥일이나 사물들에 대해 아는 것이어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었던 과거에는 무엇이 인류에 해롭고 이로운지를 몰라 갖은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 오염되어 있어서 항상 질병을 일으켰고 소독이라는 개념이 없어 산모와 갓난아기가 죽어 나갔고 전염병이 돌면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였으며 빈대와 벼룩이나 이가 들끓었습니다. 몸에 독이 되는 수은과 납의 위험성을 모르고 몸에 바르거나 먹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지식이란 없으면 비참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지식이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식이 점점 커져서 방향 없이 스스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진 지식은 언뜻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으나 결국 사람들보다 더 커져 버렸고 지금도 커지고 있어서 이제 사람이 다스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며 사람들이 의존하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면 거짓을 사실로 말할 수도 있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대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전12:12).

2.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반면 지혜란 지식과 달리 ‘나 자신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위대합니다. ‘바깥 사물과 바깥일들을 아는 지식을 가진 “나 자신”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잠4:7-9),(잠3:14-18). 그러나 폭발적으로 성장한 지식과 달리 자기 자신을 아는 지혜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지식은 반드시 지혜로 다스려야 합니다.

내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관찰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 바깥을 비추는 빛이 비추어야 합니다(눅11:34,35). 이처럼 나를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을 비추는 빛,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이 나의 마음을 비추어야 합니다(요8:12).

이 빛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빛을 거부하면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결코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요1:9-11).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 빛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바깥 사물은 알 수 있지만 절대로 내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아는 일은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주셔야만 합니다. 즉 “내가 누구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답해주셔야 “내가 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 심신이 병들고 연약하여 늘 치료가 필요한 자,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자, 죽음을 이길 수 없기에 주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을 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롬7:18,19), (롬7:24)!

결국 지혜란 주님이 가르쳐주셔서 나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약1:5).

< 적용 & 실천 >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생각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빛이 나를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 생각하시는 나를 깨닫게 되기를 다시 한 번 간구합시다.